

제2형 당뇨병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10년간의 추세 변화 -부산 시내 6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Korean Diabetes J 33(1):65-72, 2009)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수경 · 김덕규

Cause-of-Death Trends for Diabetes Mellitus over 10 Years (Korean Diabetes J 33(1):65-72, 2009)

Su Kyung Park, Duk Kyu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저희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뇨병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뇨병으로 인한 이환과 사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이환의 원인과 사망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뇨병은 질환 자체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한 이환과 사망률이 높아, 그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1,2)}.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입니다¹⁻³⁾.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인슐린 치료법에 큰 발전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당뇨약들과 함께 합병증의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여러 약제들이 임상에 사용되었고, 당뇨병환자의 관리 기술 또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사망률 및 사망 원인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망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자들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표준화사망률을 이용하여 전체 인구집단과의 사망원인을 비교하는 것을 고려하긴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였던 바와 차이가 있어 이러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뇨병환자에서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에 대해 분석함에 의견주신 대로 표준화사망률을 이용하여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10년 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에 본 연구의 연구 계획은 10년 전 연구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원인은 10년 전과 동일하게 직접사인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악성 종양의 경우,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을 분석하였으나 10년 전 자료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없어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 나이,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사망 원인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같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역학 코호트 연구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저희들 연구가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Kim SG, Choi DS: *The present state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51:791-8, 2008
2. Cho NH: *Prevalence of diabetes and management status in Korean population. Korean J Med* 68:1-3, 2005
3. Kim JH, Choi IS, Kim CW, Ku HS, Son SP, Lee KJ, Jeong CH, Choi SY, Kim IJ, Kim YK, Kang DY, Kim DK, Lim OJ: *A study on the use of death for patients with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Korean J Med* 50:530-6, 1996